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및

확산방안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증가 및 대도시의 산업화로 물자가 풍부해짐에 따라 우리 생활속에서 생활쓰레기와 공업용 폐기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단 쓰레기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는데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70년에 1인당 1일 1.27kg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으나 10년후인 80년에는 1인당 1일 2.5kg으로, 이같은 양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2배 정도로서 월등히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난방 및 취사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연탄재를 비롯 식생활의 특수성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전체발생량의 6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들어 서울시에서 1일 평균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은 25,000톤으로 8톤트럭에 3,500대분이며, 전국적으로는 72,897톤으로 약10,000대에 달하고 있는데, 매립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썩지않는 깡통, 쇠붙이, 알루미늄, 플라스틱, 염화비닐 등을 위시한 불연성인 질나쁜 쓰레기로 이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없는 것들로서 외화낭비를 부추기는 요인들이다.

김천주 /대한주부물림연합회 회장

한편 일천만 서울 시민의 쓰레기 처리를 도맡아 해 오던 난지도 매립지도 금년으로 그 수용량이 한계에 달해 서울시에서는 600억원의 재원을 들여 김포에 새로이 매립지를 조성중에 있다한다. 이렇듯 급속한 쓰레기량의 증가는 결국 최종 쓰레기 매립장의 궁핍과 처리장의 장거리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필연적으로 처리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게된다. 이제 쓰레기문제는 매립장의 궁핍뿐아니라 토양, 수질, 공기 등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되므로 전국 가정은 물론 각 시, 도, 군, 읍등을 막라하여 심각한 작성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민 각자의 자각으로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본다.

쓰레기의 처리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위해서 우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도록 알뜰히 물건을 소비해야하고 발생된 쓰레기도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버리므로 수집, 운반과 최종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해야만 한다.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는 습관은 부족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우선 위생적으로 처리되므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보존할 수 있으며 산패되는 동시에 땅과 공기를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신문, 강통,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데 필요한 외화낭비를 절약할 수 있게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드는 인건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잇점이 생긴다. 이렇게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기위해 본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3색 분리 수거운동을 설명한다면, 색상별 비닐주머니의 용도에따라 첫째, 검정색 비닐주머니에는 각종 음식물 찌꺼기를 담고 주머니 입구를 꼭 묶어서 주머니 밖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오거나 터지지 않게 위생적으로 악취 및 해충을 방지해주어 수거해가는 미화원에게도 미안함을 덜 갖게 해주고 또한, 이렇게 분리수거된 음식물은 사료로 사용할수도 있으며 쓰레기 매립지의 면적도 덜 차지하게 된다. 둘째로 노란색 비닐주머니에는 병, 강통, 우유팩, 헌잡지, 비닐, 플라스틱, 나무, 유리조각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만주면, 전국 1천36만세대 주부가 하루에 19억8천여만원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하니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실감케 해 주는 일이다. 이러한 분리수거운동은 여지껏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낭비되던 막대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국가경제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것이다. 셋째로 분홍색 비닐주머니에는 헌옷, 기저귀, 휴지 등 재활용안되는 기타 태울 수 있는 가연성의 모든 쓰레기를 넣어주면 된다.

현재 가연성쓰레기를 이용하는 곳은 목동아파트외에 의정부에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되어 약20%의 양을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분당, 성남, 대구 등 점차로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되면, 전량의 가연성쓰레기가 연료로 또는 산업생산품 제조 등에 이용되며 석유수입에도 적으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의 정착은 자원의 절약뿐아니라 각종 공해에 쪼들은 우리의 주변환경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위생적인 조건하에 미화원의 업무를 대폭 축소시켜주는 동시에 처우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전한 생활습성으로 자리잡게되어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의 대책

일본이나 서독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는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서독의 경우 쓰레기를 요일별로 수거해가고 있으며 제때 못버려 집앞에 쌓아두게 되면 벌금을 내기도 한다. 주방에서 설거지 할때도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기가 하수도로 그냥 버려져 하천을 썩게 만들지 못하도록 반드시 휴지로 먼저 모든 그릇와 기름기를 제거한뒤 닦는것이 서독에선 상식이며 습관화 되어 있다한다. 또 슈퍼마켓등에서도 색상별로 병을 따로 버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고있어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협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쓰레기중 종이, 음식물 찌꺼기 등 가연성물질은 대부분 소각처리하여 전체 발생량의 69%를 처리하고 있고 매립방식도 단순매립이 아닌 위생매립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소각방식에 있어 서도 단순히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각여열을 이용한 온수수영장 등을 설치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시 목동과 의정부시에 소재한 소각로 2기(1일 200톤처리)에서 처리되고 있긴하나 미약한 실정이다. 일본

주부들은 비닐 자체의 공해성을 인식하고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비닐을 안쓰는만큼 제품의 가격도 그만큼 인하해 달라는 소비자 운동까지도 벌이고 있다한다. 이는 우리나라같이 포장지 범람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자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편 골목마다 설치해 놓았던 쓰레기통을 제거하므로 자가용차가 교차하는데도 불편을 없게하는 등 쓰레기는 그날그날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정착화되고 쓰레기의 종류별 분리수거도 실시하여 매월 날짜를 정하여 신문, 잡지만 수집하는 날 못쓰는 가구나 가전제품만 수집하는 날, 수은전지, 형광등, 전전지등으로 구분해 놓고 실천해야할 것이다. 비단 전전지 생산회사는 제품의 생산판매에만 관심이질게 아니라 쓰고버린 제품의 회수 및 처리에도 관심을 갖고 나아가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을 방지하는데도 앞장서야겠다. 또 우리나라 단독주택에서는 정화조 시설이 규격대로 되어 있지않아 하수도와 연결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며 개선하는 방향의 정책은 시급한 현안문제다. 정부측에서도 이러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전개에 부응하여 적절한 정책을 강구하여 쓰레기 처리문제와 미화원의 처우개선문제 등에도 대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지난 2월초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위한 초창기 시범지역으로 마포구 아현동, 노고산동, 은평구 구산동, 불광동 미성아파트, 강남구 도곡동 개나리아파트, 을림동 웨밀리아파트 등이 출발하였는데, 현재는 송파구 오금동 상아아파트, 강서구 목동아파트, 마포구 아현2동, 도화1동, 마포맨션 등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데 우선, 경남 창원시, 충남 청원군, 인천직할시 등은 지방 행정기관의 지대한 관심속에 참여를 시작했고, 성동구 성수동, 구로구 개봉동 원풍아파트, 노원구 상계9동, 관악구 봉천동 삼호아파트, 강남구 신사동 등으로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나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의 자세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은 정부나 정책 당국자에만 미루지말고 주부의 힘으로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별로도 관심있게 참여한다면

지금 국교1년생이 앞으로 고교1년생으로 되었을때는 우리의 주변환경이 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앞으로 분회에서는 좀더 긍정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 미화원(청소원)이 모범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하는 주부들은 시, 도 구청별로 각2명씩 선정하여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주부 등산요원도 모집하여 산과 들에서 향락객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환경보존에 앞장서서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 이렇듯 환경오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선다면, 어느 양심없는 공장주가 폐수와 산업폐기물을 남몰래 버릴 수 있겠습니까. 화목한 가정과 건실한 사회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환경오염 추방에 앞장설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어머니의 솔선수범은 곧 그 자녀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어머니는 백명의 스승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